

마음 열기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 오른쪽 앉은 사람의 “배울 점”을 한가지씩 말해 봅시다.

말씀 나누기 행 28:1-6,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찾자”

바울은 먼저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백부장에 의해 감옥에 갇혔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때에 바울은 전날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배에 탄 모두의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27:22-25). 여기에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27:26).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에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전날 밤에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심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깨달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당연히 바울을 지켜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먼저’ 믿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히 11:1) 오늘 우리도 먼저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상을 보지 않고 말씀을 찾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풍랑 속에서 결국 살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1절). 그곳의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주었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2절). 드디어 고난이 끝나고 은혜의 순간만 가득하나 싶었지만, 그에게 또 다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불에 나무를 넣으려 할 때 튀어나온 독사에게 물려버린 것입니다(3절). 이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에서 더 크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시험과 환란을 분별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본 원주민들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판단했습니다(4절).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독사를 떨어내 버리자 금세 바울을 신으로 여기며 태도를 바꿨습니다(5-6절). 이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독사에 물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현상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23:11).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눈앞의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능력, 상태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현상에 눈이 멀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말씀으로 그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말씀을 찾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그 말씀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는 현상을 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찾는 사람인가요? 점검해 봅시다.
2. 은혜와 평안 가운데 더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가 있나요?
3. 내가 붙들고 사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현상만 보고 판단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말씀을 먼저 믿고 붙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3.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순종 : 은혜의 메아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 복종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기준을 모호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도덕법’을 주셨고, 이를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법이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3:10).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력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회개**”라는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죄를 슬퍼하고 다시 계명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새 언약의 순종의 형태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인 “**사랑**”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여기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다시 서 보십시오.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며,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FAMILY 나눔

2026년 3월 8일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찾자

사도행전 28장 1-6절

